

2014 6.29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제 1 독서 : 사도행전 12,1-11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헤로데의 손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제 2 독서 : 티모데 2 4,6-8.17-18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 음 : 마태오 16,13-19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지난번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에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사를 집전 하신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신부님은 철학을 공부하시고 늦게 사제서품을 받으신 분인데, 그 분 말씀이 “ 요즘 우리의 세상은 진리의 혼동의 세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 무엇이 옳은지 전혀

본간이 안가는 그런 세상이다. 오직 내 주장만을 피력하고 사는 세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신앙자체도, 우리가 믿는 신앙자체도 다 자기방식대로 이해하고, 자기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내 마음 입니다. 기준이 내 생각인데 그것이 아침, 점심, 저녁때가 또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 ? 모르는 것 이지요. 기준이 뚜렷하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잣대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기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나는 불안할까 ? 왜 나는 만족을 못 느끼는가 ?

우리는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 입니까 ?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어떤 기준이 정확히 서 있을때, 아침, 점심, 저녁때 바뀌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개념상 말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에, 즉 진리에 내가 가까이 가고 있을 때에 나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즉 하느님이라는 자체도 내 생각대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내가 가까이 가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신에 혼동이 있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요즘세상을 돈의 가치로, 자본주의의 돈의 가치로 생각하고, 내가 돈도 많이 가지면 행복 한 줄 알고 가져 보지만, 가져 보면 또 그것이 아닙니다. 소나기라는 단편소설에서 무지개라는 허상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은 없어집니다. 손으로 꼬옥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 **이 세상에 정지하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한강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내가 똑같은 강에 들어가도 같은 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흘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전야미사의 복음에는 요한 복음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세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 보신 것입니다. “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 바로 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 **내 양을 잘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그 양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야 하는지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양들은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제대로 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천주교밖 바로 개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 얼마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최근에 결정이 난 것입니다. 작년에 문제가 발생 하였지만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보수중에서도 보수라고하는 장로교파에서 동성결혼을 허가하는 결정이 이번에

총회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파 안에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동성애자 목사를 허용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쪼개어졌었습니다. 이번 이 결정으로 그 교가 또 반이상으로 잘려나가는 것 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목자는 누구 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것을 전해주시는 바로 베드로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자본주의와 잘못된 민주주의에 의하여, 사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다수결이라는 그 표의 힘때문에 진리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고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한국의 정치세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것이 극에서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진리가 올바르게 서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느낌대로 나의 기분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파에서보면 보수는 완전 수구골통이고, 보수쪽에서 보면 진보는 완전히 날라리들인 것입니다. 양쪽에서 보면 서로가 옳은것이 없이 서로가 엉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책을 읽고, 한권의 책을 읽고 손쉽게 생각이 확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년전에 다빈치코드라는 책이 나왔을 때에, 완전히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고, 그런데 분명히 그 책의 저자는 이것이 실재가 아니라 공상 소설이라고, 픽션이라고 책의 서두에서 밝혔음에도, 우리의 아이들은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가르치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두가 허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백년이 걸렸습니다. 거르고 걸러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과 모든 것을 조사한 다음에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기준이 되는 잣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기분이 잣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리는 있습니다. 흔히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 이지요. “**진리는 없다**”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칠때에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명제를 바로 진리로 삼고사는 자기모순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하느님을 부정 할래야 부정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2 독서의 바오로사도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바오로성인이 부럽습니다. 과연 내가 죽을때에 바오로 사도처럼 하느님앞에서 자신 만만하게, 떳떳하게 죽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바오로 사도처럼 내 온몸을 다해서 내 온힘을 다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을까? 그 정도의 열정이 있을까? 그 정도의 믿음이 있을까? 바오로사도처럼 그런 삶을 살았을때에 그 삶은 정말로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죽을 때에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고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있을까?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싶은대로,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은 없어!” 라고 만족하면서 죽을 것인가? 둘중에 하나는 되어야 사실 인간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으면 제가 하고 싶은대로 다하고 죽든지, 영혼을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믿는다면 내가 최대한 노력하여서**, 그래도 **하느님 말씀을 내 힘을 다하여서 따랐다**고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사중에 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더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희망이 무엇인지?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백은 네 고백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바로 **양심**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깊숙히 있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하느님께서 써주신 진리를 들을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 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안에 있는 바로 그 깊숙한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 할수 있는 것 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헤로데의 손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2,1-11

그 무렵 1 헤로데 임금의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었다. 2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3 유대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4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네 명씩 짝 네 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5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6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7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8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매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9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라니 생각하였다.

10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11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대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34(33),2-3.4-5.6-7.8-9(◎ 5 ─ 참조)

◎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 서 말씀입니다. 4,6-8.17-18

사랑하는 그대여, 6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7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17 주님께서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18 주님께서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19

13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15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16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